

市 2030년까지 30% 감축...道 노후경유차 3907대 폐차

광주시·전남도 미세먼지 대책은

市, 18개 사업에 829억원 투입 주행차 탄소포인트제 등 도입 道, 천연가스 버스 114대 보급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중국에서 건너오는 양도 많지만 국내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관련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실제, 광주시가 지난해 12월 출근시간 도로변과 주택가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의 양을 처음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도로변에서 훨씬 많은 양이 측정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발생을 유발하는 차량을 점진적으로 폐차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광주시=국제기후환경센터가 지난해 12월 18일 전남대학교 후문 도로변과 두암동 주택가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를 분석한 결과, 차량 통행이 잦은 전남대 후문 도로변에서 훨씬 많은 양이 검출됐다.

〈표 참고〉 ■ 미세먼지 측정 결과

차량 통행량에 따른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검출량을 비교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측정된 이번 조사에서 도로변의 초미세먼지가 주택가보다 최대 25μg/m(오전 6시)나 많았다. 도심권의 도로변을 달리는 차량에서도 상당량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광주시는 9곳의 대기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도로변과 주택가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양을 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비교·분석했다.

조사에 참여한 황철호 박사는 “시간대별로 분석했을 때 차량 통행이 많은 출퇴근 시간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의 발생량이 급증했다”면서 “정확한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측정과 이에 따른 시민 홍보를 위해서는 도로변에 더욱 많은 측정망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시는 다양한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저감책을 내놨다. 광주시가 오는 2030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줄이기로 한 ‘2030 미세먼지 저감 추진 계획’에 따르면 5개 부문, 18개 사업에 829억원을 투입된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2020년 21μg/m³, 2030년에는 유럽 수준인 18μg/m³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유럽 주요 도시 미세먼지는 ▲파리 18 ▲도쿄 16 ▲런던 15μg/m³가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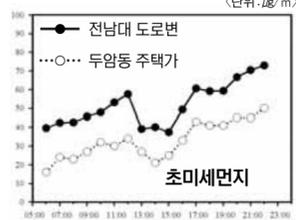
광주시는 또 수송 부문에서 운행차 주행거리 탄소포인트제 신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6개 사업에 210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대기오염 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10)’는 지름이 10μm(마이크로미터)이하의 먼지다. 1μm가 1000분의 1mm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로 작은 먼지다. ‘초미세먼지(PM2.5)’는 미세먼지보다 더 작다.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μm 이하로 미세먼지의 4분의 1 규모다. 미세먼지는 18일과 21일처럼 고농도일 때는 중국 유입이 주범이지만, 평소에는 경유차가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자발적 협약,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31억여원이 쓰인다. 생활 부문에서는 미세먼지가 악화하는 시기 살수 차량을 동원해 도로변 먼지를 제거하는 등 3개 사업에 337억여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지역 주요 대기 오염원은 자동차(47%), 건설장비 공사현장(36%), 가정(13%), 제조업(4%)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울머어 전남에서는 순천 장전동 주민들이 미세먼지로 가장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 18일(104μg/m³)과 20일(87μg/m³), 21일(88μg/m³) 3차례 미세먼지(PM10) ‘나쁨’(81~

■ 초미세먼지 측정 결과



150μg/m³)경부가 발생했다. 또 18일엔 초미세먼지(PM2.5)도 ‘나쁨’(85μg/m³)이었다.

미세먼지 100μg/m³을 넘어선 곳은 광양읍(18일 102μg/m³), 나주 빗가람동(111μg/m³), 영암 나불리(112μg/m³), 목포 부흥동(21일 103μg/m³) 등이었다.

전남도에 따르면 중국 등에서 밀려오는 미세먼지는 평소의 경우 30~50%, 고농도 때는 60~80%정도 차지한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은 경유차가 29%로 가장 많고, 냉난방 12%, 발전소 11%, 휘발유차 4% 등의 순이었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내 배출량을 줄이면 청량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의미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대대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사업을 진행한다. 도는 올해 62억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3907대를 폐차하기로 했다. 지난 2년간 2909대를 폐차한 것과 비교하면 감축 3배 이상 확대하는 것이다.

또 목포·여수·순천·광양·나주 등 5개 시에는 23억원을 들여 천연가스(CNG) 시내버스 114대를 보급한다. 전기자동차 지원사업도 190대 늘린다.

도는 연말까지 전남 22개 모든 시·군에 미세먼지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한다. 구례·곡성·함평 등 10개 군(군) 10곳이 설치 대상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통합반대파의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반통합파 “26일 당명 발표”...창당 속도 안대표 오늘 당무위 소집 당원권 정지 등 징계 나서

신당 당헌당규위원장에 이용주 의원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내 통합반대파가 오는 26일 자신들이 추진하는 신당의 정식 당명을 발표하기로 예고하는 등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회(창추위) 대변인인 최경환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반대파 의원들과 정례회의를 한 후 “금요일(26일) 아침 창추위 전체회의에서 당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재까지 페이스북 공모를 통해 개혁평화당, 민주평화당, 햇볕당 등 100여 개의 안이 들어왔다”고 소개했다.

최 의원은 또한 신당 추진작업 관련 인선 문제에 대해 “창추위 당헌당규위원장에 이용주 의원을 추천했다”며 “총무위원장은 아직 협의가 안 끝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당 창당 정신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호남 민심을 배신하

는 바른정당에 합류할 수 없다”며 “이 시간 이후로 안 대표가 임명한 제1정조위원장 등 당직에서 사퇴하고, 합당이 성사되면 탈당해 개혁신당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대파 의원들이 꾸리고 있는 개혁신당 합류를 공식화했다.

창추위 대표인 조배숙 의원은 앞서 오전 회의에서 “개혁신당은 안철수·유승민 대표의 ‘보수야합’ 개혁신당이 아니라, 진짜 평화개혁신당을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며 “촛불혁명의 뜻을 받들어 적폐청산과 국가 대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히는 등 국민-바른 통합신당과의 노선 차이를 분명히 했다.

통합반대파 의원들이 26일 신당당명 발표, 28일 개혁신당 창당준비위 발기인대회, 2월 6일 창당이라는 구체적 창당 일정표와 신당의 정치적 노선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서자 안철수 대표도 반격에 나선 모습이다. 이날 오후 ‘당헌에 따라 23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공고를 낸 것이다.

안건은 ‘해당 행위에 대한 대책 논의의 건’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통합반대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 예고다. 안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통합 반대를 겨냥해 “당 대표로서 원칙과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당헌·당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당 안팎에서는 안 대표가 통합 반대파들을 대상으로 ‘당원권 정지’라는 긴급징계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제명의 경우 윤리심판원을 거쳐야 하는데 당무위에서 할 수 있는 최대 징계는 당원권 정지까지 가능하다. 징계 대상자 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국민의당 통합 상대인 바른정당은 다음달 5일 전당대회를 열고 국민의당과의 합당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전당대회(2월 4일) 결과를 정밀할 수 없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고 바로 다음 날 바로 전당을 개최, 속전속결로 합당을 결정해 통합 속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형욱기자 khh@kwangju.co.kr

안철수·유승민 광주서 통합 드라이브...선언후 첫 방문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통합포럼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광주를 찾는다. 국민통합포럼은 23일 광주시 서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민생현안 간담회를 연다. 이어

기자회견과 양동시장에서 민생탐방을 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외식업계의 문제점과 대책마련에 대해 논의하고, 청년 창업가들과의 만남도 결속된다. 이 간담회에

는 이인주·정운천 국회의원과 통합에 찬성하는 국민의당 광주지역 당원 등이 참석한다.

특히 국민통합포럼은 최근 통합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탈당을 주장하는 등 통합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어 이날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의 통합 반대파를 겨냥한 낯선 공세도 예상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에너지관리공단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NAVER 해가온에너지 검색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TÉLÉSIS Paris

Tel. 062,223,19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6-11
ACC디자인호텔 1F

TÉLÉSIS Paris

텔레시스는 지적인 능력으로 자기목적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파리 패션 위크 데뷔와 함께 패션문화거리 마레지역에서 활동했던 텔레시스는 25년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정된 트렌드에서 벗어나 로맨틱 감성을 바탕으로 과장되지 않는 디테일 속에서 Chic & Unique한 자기 표현을 연출합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않는 열정으로 차별화된 디자인과 퀄리티를 추구합니다.

Hwang Mina

-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 파리 ESMOD 의상학교 Styleist 전공
- 파리 FLEURMON 메이크업 전공
- CLAUDE MONTANA 디자이너
- LUC SAINT ALBAN 프리랜서
- BALANCIAGA 프리랜서
- PRET A PORTER PARIS Atmosphere(2002~) 전시 다수참여
- 2002~TELESSIS 총괄디자이너 & 브랜드 운영